

본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에 저작권중개위탁한 작품입니다. 전문읽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 본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저작권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사랑

김 용 인

주요등장인물

| | |
|-----|-------------------------|
| 이윤지 | (학교 다니는 것을 그만 둔 16세 소녀) |
| 김지운 | (강력계형사경력 25년의 베테랑 형사) |
| 이순옥 | (김형사의 처) |
| 오달수 | (강력반장) |
| 나서천 | (서천과의 두목) |
| 박금실 | (김형사의 어머니) |
| 박형사 | (김형사의 동료형사) |
| 이형사 | (김형사의 동료형사) |

기획의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세상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한 소녀가 우연히 한 중년남자의 도움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뜻밖에도 그리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 부모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휴머니티 사랑 이야기

시놉시스

늘 공기 같은 존재로 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 그러나 단 한순간만이라도 당신 곁에서 부모님이 돌아온다는 기약없이 떠난다면 ...

부모님의 사랑과 단절된 채 16년을 살아온 한 소녀, 이윤지
다른 이들에겐 공기같이 곁에 있어 느끼지 못했던 이가 그녀에겐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
부모님을 찾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금자리를 뛰쳐나온
소녀에게 세상은 암담하고 춥기만 하다.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소녀는 길가에서 픽 쓰러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절망적 상황에 내몰리는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다.

5년 전 딸을 조폭에게 잃은 슬픈 이력을 가진 남자, 김지운 형사
술로 딸을 잃은 아픔을 달래며 이제 마음에서 딸을 조금씩 떠나보내는데
죽은 딸과 너무나 닮은 한 소녀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녀를 병원에 데려간다.

남자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소녀는 김형사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툭툭 지르는 말로 김형사의 마음을 아프게만 한다.

뒤늦게 김형사는 강력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 사정으로 하루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하고 병실에서 잠이 든 소녀를 지켜본다.

점심시간이 되어 배고픔을 느낀 김형사가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소녀는 꿈결에 가지 말라고 외친다.

소녀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고, 김형사는 소녀가 지닌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김형사는 소녀를 위해 먹거리를 사오지만 소녀는 내팽개쳐 버린다.

김형사가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소녀는 선반위에 올려놓은 먹거리를
먹는다.

식사를 하고 돌아온 김형사는 폭 줄어든 먹거리를 보는 것이 흐뭇하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소녀도 조금씩 김형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

그것도 잠시 갑작스럽게 김형사에게 걸려온 강력반장의 출동메시지에
김형사는 출동한다.

김형사는 서천과검거를 위해 모텔에 출동하지만 서천과 조직원들과의
싸움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옮겨진다.

나서천을 비롯한 서천과 조직원 대부분이 경찰에 검거된다.

김형사의 처는 강력반장에게 김형사가 의식불명상태라는 말을 듣고
혼절했다가 다음 날 정신을 차려 김형사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간다.

소녀는 우연히 TV뉴스를 보고 김형사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고
퇴원 후 김형사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소녀와 김형사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마주친다.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김형사의 가족들은 소녀와 함께 김형사를

면회한다.

김형사의 처는 소녀가 면회를 마치고도 계속 병원에 남아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연유를 물어보다가 소녀가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소녀는 나서천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떠올리고 경찰서에 가지만 나서천은 소녀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다시 병원에 돌아온 소녀를 김형사의 처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김형사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한다.

김형사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소녀는 김형사에게 5년 전에 죽은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김형사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게 된다.

강력반장은 박형사로부터 소녀가 나서천을 만나러 와서 이윤지가 나서천의 딸인지 물어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서천과 소녀를 대질심문하기 위해 박형사와 이형사에게 소녀를 찾아오라고 한다.

박형사와 이형사는 팔방에서 찾다가 병원에서 김형사의 처를 만나 소녀가 김형사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는다.

소녀는 박형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 대질심문을 받게 되고, 김형사의 어머니는 이형사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엿듣게 된다. 김형사의 어머니는 분노하여 김형사의 처를 병실에서 내쫓고 김형사는 발작을 일으켰다가 안정을 되찾는다.

김형사는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고 김형사의 처를 찾는다.

6개월 후 김형사는 퇴원을 하게 되는데 김형사의 처는 김형사에게 윤지를 입양하자고 말한다.

병원 앞뜰에서 김형사는 김형사의 어머니에게 윤지를 입양할 의사가 있음을 말하려다가 김형사의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게 된다.

윤지는 울면서 달려 나가고 김형사의 처는 김형사의 어머니에게 따진다.

윤지는 박형사에게 부탁해 나서천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간다.

윤지는 나서천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어머니를 알게 된다.

대문 앞에서 윤지를 안절부절못하게 기다리던 김형사의 처는 마침내 윤지와

모녀로서 만난다. 그러나 윤지입양에 대한 김형사어머니의 강한 반대로 김형사의 처는 시름이 깊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형사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하여 윤지가 김형사어머니의 온 몸을 주물러준 후 김형사어머니는 꿈에서 죽은 손녀를 본다. 김형사어머니는 잠시 동안 아침상을 차려오는 윤지를 손녀로 보고 양 손으로 윤지의 얼굴을 만진다.

마침내 김형사어머니는 윤지의 입양을 허락하고 김형사의 처와 윤지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윤지와 김형사의 가족 모두는 함께 노래방에 와서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더불어 강력반장과 박형사, 이형사도 노래방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눠준다. 윤지는 혼자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씬1 공원 벤치 / 이른 아침 / 겨울

카메라 을씨년스런 공원 주위 모습을 비추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소녀에게 시선을 맞춘다.

16살 한 소녀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

윤지(나레이션)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울지 마. 이윤지

그동안 부모님 없이도 16년 잘 살아 왔잖아.

애써 담담한 척 하지만 눈에선 눈물이 툭툭 흘러내린다.

씬2 고아원 앞 / 늦은 오후 / 초봄

'16년전' 자막처리되어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미혼모 엄마가 아기를 고아원에 맡기고 있다.

미혼모 아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아원장 네.

못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미혼모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린다.

아기가 울자 고아원장이 들고 있던 아기를 와락 끌어 앉는다.

고아원장은 측은하게 이 모습을 바라본다.

고아원장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기를 다시 원장에게 안기며)

미혼모 네

고아원장 아기이름은 어떻게 지셨어요?

미혼모 이윤지예요.

미혼모 꼭 잘 키워 주세요.

고아원장 네.

미혼모는 아기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난다.

미혼모의 뒷모습이 조금씩 작아져 보이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진다.

원장도 아기를 안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간다.

TITLE 사랑

썸3 공원 벤치 / 이른 아침

한기가 느껴지자 소녀는 온 몸을 오들오들 떤다.

소녀는 주머니에 든 지갑을 꺼내어 남은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본다.

달랑 남은 돈이 5천원짜리 하나, 천원짜리 3개, 백원짜리 7개뿐인 걸 확인하고 한 숨을 내쉬는다.

여러 날은 굶은 것같은 초췌한 표정이다.

소녀는 힘겹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처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간다.

한참을 걸어 가다가 정신을 잃고 길가에 푹 쓰러진다.

썸4 병실 안 / 아침

소녀가 깨어나 정신을 차려 보니 한 중년의 남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
벅 졸고 있다.

(아저씨를 흔들며 깨우며)

윤지 아저씨 누구세요? 그리고 왜 제가 여기 있어요?

아저씨는 잠에서 깨어 소녀를 바라본다.

김형사 어, 깨어났구나.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힘에 겨워서 다시 눕는다.

김형사 아직 무리하면 안돼.

소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흘러내린다.

아저씨는 주머니에 든 손수건을 꺼내어 소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준다.

(아저씨를 밀쳐내며)

윤지 아저씨가 뭘데 절 여기 데려다 나요?
 그냥 죽든지 마든지 나두지 왜 살리냐 말이에요.

김형사 너, 아저씨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반항적 어투로)

윤지 누가 아저씨의 그 싸구려 동정심이나 바라는 줄 아세요?

순간 화가 난 아저씨, 소녀의 뺨을 때린다.

김형사 미안하다

소녀는 이불을 덮어쓰고 영영 운다.

아저씨는 이불을 만지작 거리다가 물끄러미 쳐다본다.

씬5 병실 밖 복도 / 아침

아저씨는 우는 소녀를 뒤로 하고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쳐다본다.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전화를 건다.

김형사 여보세요? 김지운 형사입니다.

(격한 목소리로)

강력반장 자네 지금 어디야?
누구 지금 속 끊는 거 보고 싶어?
빨랑 출근해.

김형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하루만 빼 주십시오.
 끊겠습니다.

짚작 끊는 소리

강력반장 이봐! 김형사

강력반장 젠장

김형사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다.

김형사, 휴대전화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받는다.

김형사 여보세요?

김형사의 처 좀 전에 강력반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당신 뭘 일 있는 거야?

김형사 일은 무슨.
 나 바쁘니까 끊어.

김형사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차트를 든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걸어 온다.

김형사가 가볍게 목례하자 의사와 간호사도 김형사에게 목례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김형사도 뒤따라 병실 안에 들어간다.

씬6 병실 안 / 아침

소녀는 곧히 자고 있다.

의사는 소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에 청진기를 대어본 후 떼어낸다.

김형사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 영양공급 부족으로 인한 탈진 증상과 약간의 빈혈기가 있는 것
외에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다른 증상은 없네요.
환자분이 혹시 다른 이상증세를 보이면 즉시 호출해 주세요.

김형사 네. 감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병실 밖으로 나가고 김형사는 의자에 앉아 소녀의 자는 모습을 쳐다본다.

김형사도 이내 졸음이 몰려와 침대 한 모퉁이에 얼굴을 눕히고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든다.

썸7 병실 안 / 점심

김형사가 깨어나서 시계를 쳐다보니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소녀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김형사, 배고픔을 느낀다.

병원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하기 위해 일어나려는 순간

윤지 엄마!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식은 땀을 흘리며 소녀는 잠에서 깨어난다.

김형사는 다시 의자에 앉는다.

소녀의 시선이 김형사에게로 향한다.

둘의 시선이 마주치고 어색한 정적만 감돈다.

정적을 깨는 김형사의 한 마디

김형사 너, 엄마 많이 보고 싶니?

(화를 내며)

윤지 내 앞에서 다시는 엄마 얘기 꺼내지 마요.
 안 그러면
김형사 안 그러면?
윤지 확 죽어 버릴 지도 몰라요.
김형사 무슨 그런 살 떨리는 말이 있니?
 쉬어라.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씬8 시장통 / 점심

시장통 상인들에게 묻는다.

김형사 요즘 애들은 어떤 걸 즐겨 먹나요?
시장통 상인 1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즐겨 먹어요.
시장통 상인 2 애들한테 관심 좀 많이 가져요.
시장통 상인 3 근데 그런 거 왜 물어 보신 거 예요?
김형사 오늘 출근하는데 어떤 소녀 한 명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어요.
시장통 상인 3 그 소녀에게 먹거리 사주려고 물어보신 거군요.
김형사 네
시장통 상인 1 그 소녀 배고플 텐데 어서 일 봐요.

김형사는 상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먹거리를 사서 병실에 돌아온다.

씬9 병실 안 / 점심

김형사 네가 뭘 좋아하는 줄 몰라서 여러 가지 좀 샀다.

(신경질을 내며)

윤지 누가 아저씨 보고 이 탄 거 사달래요?

소녀는 김형사가 사온 먹거리를 통째로 내동댕이쳐 버린다.

윤지 다 싫으니까 꺼지란 말이에요. 꺼져.

김형사는 소녀가 내동댕이친 먹거리들을 다시 봉지에 주워 담아 병실 한 모퉁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김형사 나중에 맘 바뀌면 먹어라
 이 아저씨도 배고파서 식사 좀 하고 오마.

김형사가 병실에서 나가려는 찰라

윤지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돌아서서 소녀를 보며)

김형사 강력계 형사로 25년째 일하고 있지.

김형사가 병실에서 나간 후 소녀는 그가 선반 위에 올려놓은 봉지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소녀의 뺏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온다.

소녀, 봉지에 든 먹거리들을 꺼내어 먹는다.

썸10 병원 구내식당 / 점심

점심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로 식당 안이 붐빈다.

손님1 여기 김치볶음밥 하나랑 김밥 두 줄 주세요.

종업원1 2번 테이블에 김치 볶음밥 하나 김밥 두 줄요.

손님2 여기 순두부 주세요.

종업원1 4번 테이블에 순두부 하나요.

주방장 1번 테이블에 된장찌개 갖다 줘.

종업원2 네.

(1번 테이블 손님에게 된장찌개를 갖다 주며)

종업원2 맛있게 드세요!

김형사, 모퉁이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다가온다.

종업원1 손님께서는 뭘 드시겠어요?

(잠시 메뉴판을 쳐다보다가)

김형사 설렁탕 하나

종업원1 여기 모퉁이 자리에 설렁탕 하나요.

김형사 신문을 읽다가 아버지와 딸 사이로 보이는 손님들에게 시선이 옮겨간다.

두 손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를 김형사가 부럽게 쳐다본다.

종업원2 설렁탕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종업원, 김형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다.

김형사, 읽던 신문을 접어두고 설렁탕을 먹는다.

설렁탕을 다 먹고 카운터에 계산하고 구내식당에서 나온다.

썸11 병실 안 / 오후

김형사 점심 식사를 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온다.

소녀, 잠자고 있다가 문 여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다.

김형사 내가 곁히 자고 있는 널 깨운 모양이구나.

윤지 아시네요.

김형사 그럼 다시 나가줄까?

소녀, 어이없는 듯 김형사를 쳐다보다가 웃는다.

윤지 지금 누구 놀려요?

사람 잠 다 깨워 놓고선

김형사의 시선이 선반 위에 있는 봉지로 향한다.

봉지를 한 눈에 봐도 반은 폭 줄어있다.

소녀, 순간 몸이 움찔한다.

김형사 내동댕이칠 때는 언제고
윤지 누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아저씨 사온 성의 봐서 먹어준 거지.

김형사, 빙그레 웃는다.
김형사가 웃자 소녀 무안해 한다.

김형사 고맙다
윤지 뭐가요?
김형사 다
윤지 무슨 그런 똥판지같은 소리가 있어요?
김형사 뭐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얘기해.
윤지 네.

김형사, 아직도 서 있다.

(의자에 손짓을 하며)

윤지 아저씨!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 예요?
김형사 네가 이 아저씨 걱정해준 거니?
윤지 아니요. 제가 보기 불편해서요.
김형사 이 아저씨 걱정해줬다고 그러면 안 되니?
윤지 그 말이 듣고 싶으신 거 예요?
김형사 내가 뭘 말을 못해?
윤지 그러게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래요.
 아저씨! 강력계 형사라면서요.
 범인 잡으러 안 다녀요?
김형사 오늘 강력반장님께 못 나온다고 말해 봤어.

그 때 갑자기 김형사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받는다.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며 왼쪽화면에는 김형사가 전화를 받고 있고, 오른쪽

화면에는 강력반장이 전화를 건 모습이 보인다.

김형사 여보세요?

강력반장 김형사! 나 강력반장이야.

김형사 반장님께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강력반장 자네 지금 당장 출동해야겠어.

(어안이 병병해서)

김형사 네?

강력반장 긴 말 할 시간이 없네.

 지금 당장 포머스 모텔 203호로 출동하게.

 거기 서천과 두목 나서천이 숨어 있다는 긴급첩보를 입수했어.

 우리도 곧 지원병력 보낼 테니 먼저 출동하게.

김형사, 전화 바로 끊고 병실에서 뛰어 나간다.

화면분할 되었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열을 내며)

강력반장 저 자식은 늘 나보다 일찍 전화를 끊는다 말이야.

씬12 포머스 모텔 / 오후

김형사, 차에서 내려 급히 포머스 모텔 2층으로 뛰어 올라 간다.

김형사, 문을 발로 강하게 차 쓰러뜨리면서 바로 총 쏘는 자세를 취한다.

거실 소파에 나서천이 여유롭게 앉아 있다.

(박수를 치며)

나서천 오! 옛날 솜씨 하나도 녹슬지 않았어.

 우리 인연도 참 질기네. 그렇지?

 여기서 또 볼 줄이야.

 자네 딸 일은 참 안됐어.

 나도 꼭 그렇게 해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야.

 우리 애들이 워낙 성깔이 좀 있잖아.

 살살 다루라고 했더니 고만에 목을 따 버리지 않는가?

김형사 이 쳐 죽일 놈!

김형사 주위를 쇠파이프를 든 직원들이 둘러싼다.

나서천 애들아! 이 분께 한 수 좀 보여줘라.
죽이지는 말고.

직원일동 예.

김형사 총 쏘는 자세를 취하며 이리저리 총구를 겨눈다.

김형사 가까이 오면 쏜다.
경고했다.

직원들 그 장난감 총 한 자루 갖고 되게 나대시네.
용기가 가상해.
혼자서 뭘 하시겠다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와.

행동대장 처라.

직원들 우르르 쇠파이프 들고 김형사에게 달려든다.

한바탕 피 튀기는 처절한 싸움이 일어난다.

김형사는 쇠파이프를 피해 직원들을 때려눕힌다.

김형사의 눈가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리고 온 몸은 멍투성이다.

김형사가 앞 사람과 싸우다가 미처 뒤에서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러자 직원들 일제히 쓰러진 김형사에게 쇠파이프로 두들겨 팬다.

그 때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며

강력반장 경찰이다.
모두들 잡아들여.

직원들 일제히 기겁을 하고 도망가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힌다.

강력반장, 쓰러진 김형사에게 달려간다.

강력반장 김형사! 내 말 들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김형사 반장님!

김형사 의식을 잃는다.

강력반장이 김형사를 흔들며 깨워 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구급차가 도착하여 김형사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에 후송한다.

씬 13 구급차 안 / 저녁

강력반장 김형사! 내 말 듣고 있으면 눈을 떠봐.

강력반장, 영영 운다.

강력반장 자네 제발 살아만 있어주게.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야.

꼭 살아서 다시 눈을 뜨게.

자네가 이렇게 있으면 난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 친구야!

동료형사들 반장님! 진정하세요!

김형사는 우리 기대를 꼭 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씬 14 병원 / 저녁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신속히 환자를 내려 응급실로 환자를 옮긴다.

의사들 바쁘게 뛰어다니며 수술채비를 서두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서둘러서 수술실로 옮긴다.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이 수술실 앞까지 따라간다.

강력반장 자네 꼭 살아 와야 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면서 수술실 문이 닫힌다.

간호사 한 명이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에게 설명한다.

간호사 여기서부터는 출입통제구역입니다.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수술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힌다.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다.

씬 15 윤지가 입원한 병실 / 저녁

윤지 아저씨 아까 무슨 전화 받고 나간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혹시 그냥 집에 가셨나?

담당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온다.

의사 여기 같이 계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윤지 몰라요. 어디 갔는지
 오후에 전화 받고 나간 이후로 아직도 안 왔어요.
의사 보호자께서 가족분이 아니세요?
윤지 네. 솔직히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분이 형사라고 하시던데요.
의사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진찰 좀 할게요.

의사가 청진기를 소녀의 배에 대어본 후 떼어낸다.

의사 오늘 아침 때 보다는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간다.

씬 16 수술실 앞 / 늦은 저녁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형사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리죠?
이형사 나도 모르죠.

강력반장 사람 마음 자꾸 심란하게 할래?
 자꾸 그런 말 하려면 가버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이 나온다.

강력반장 수술은 잘 됐습니까?
의사1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2 이제 환자분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환자가 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중환자실로 데리고 간다.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이 붕대로 친친 감은 김형사를 보자 눈물을 쏟는다.
서로 김형사를 가까이서 보려고 하다가 간호사들의 제지를 받는다.

간호사1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2 딱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환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환자를 중환자실로 데리고 간 후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은 복도 의
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강력반장 내가 김형사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울먹이며)

동료형사들 반장님!

씬 17 김형사의 집 / 밤

(걱정스럽게 시계를 쳐다보며)

김형사의 처 왜 아직도 남편이 안 오지.
 올 때가 벌써 넘었는데

건넌방에서 김형사의 어머니가 나온다.

김형사어머니 애미야.

우리 아들 아직 안 들어왔나?

김형사의 처 네. 어머님

어머님!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김형사어머니 우리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가 발 뺀고 잠을 잘 수 있겠냐?

그 때 전화벨이 울린다.

김형사의 처, 황급히 달려가서 전화를 받는다.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며 왼쪽화면에는 김형사의 처가 전화를 받고 있고, 오른쪽 화면에는 강력반장이 전화를 건 모습이 보인다.

(다급하게)

김형사의 처 여보세요?

강력반장 강력반장입니다.

김형사의 처 저희 남편 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 예요?
무슨 일 있어요?

강력반장 이런 말 드리기 참 송구스럽네요.

김형사의 처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 있어요?

강력반장 그게 말이죠.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답답하게)

김형사의 처 뭘 말인데 그렇게 뜬금없이요.

어서 말씀해주세요.

강력반장 김형사가 지금 의식불명입니다.

김형사의 처,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김형사의 어머니가 김형사의 처를 흔들어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수화기는 거실 바닥에 툭 떨어져 있다.

김형사의 어머니가 다시 수화기를 받아든다.

김형사어머니 여보세요? 김형사 어머니입니다.

강력반장 아드님께서 지금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형사어머니, 뒷골이 땡기며 어지러움을 느낀다.

김형사어머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강력반장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형사어머니 경황이 없어서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화면분할 되었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썸 18 교실 / 오전

윤지의 꿈 속 상황이 나타난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 앉아 수업시간에 못다 한 필기를 하고 있는 윤지에게 한 여학생이 시비를 걸어온다.

여학생1 야.

윤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필기에 열중한다.

여학생1 이 년이 지금 내 말을 씹어.

여학생1, 윤지가 필기하던 공책을 냅کم 빼앗는다.

윤지, 여학생1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여학생1 니가 찌려보면 어쩔 건데.

어디서 눈을 부라려.

조또 부모님도 없는 주제에

어디 힘 좋으면 한 번 빼앗아보시든지

윤지, 여학생1을 향하여 달려든다.

여학생1, 윤지의 머리 넘어 공책을 다른 여학생에게 던져준다.

윤지가 다시 그 여학생에게 달려오자 그 여학생은 또 다른 여학생에게 윤지 머리 넘어 공책을 던져준다.

윤지, 결국엔 울음을 터뜨린다.

아무도 윤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외면한다.

씬 19 윤지가 입원한 병실 / 밤

윤지,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깬다.

악몽을 꾸 모양이다.

얼굴에선 식은땀이 흐른다.

윤지, 잠이 안 와서 몸을 이리저리로 뒤척인다.

씬 20 김형사의 집 / 밤

김형사의 어머니가 이웃집 아저씨를 불러 와 김형사의 처를 안방에 눕힌다.

이웃집 아저씨는 돌아간다.

(누워있는 김형사의 처를 바라보며)

김형사 어머니 애미까지 이러면 우짜노?

씬 21 중환자실 앞 / 아침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깬다.

때마침 지나가는 간호사 한 명에게 강력반장이 묻는다.

강력반장 면회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 의사선생님께서 면회해도 좋다고 허락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간호사 가고 다시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이 의자에 앉는다.

강력반장 자네들 어서 일 보러 가게.

동료형사들 반장님!

강력반장 뭐해. 어서 일 보러 가지 않고.

여기는 나 혼자 있으면 돼.

면회허락 떨어지면 그 때 연락해 줄 테니

동료형사들 어떻게 저희들이 김형사님을 나두고 일 보러 갈 수 있겠습니까?

강력반장 김형사도 자네들이 여기 와서 일 손 놓고 있는 거 바라지 않을

거야.

마지못해 동료형사들 일 보러 간다.

썸 22 윤지가 입원한 병실 / 아침

윤지, 잠에서 깨어 무료함을 느끼며 TV를 켜다.
뉴스가 나온다.

아나운서 KBC 6시 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경찰이 포머스 모텔에서 서천과 두목 나서천과 행동대장을
비롯한 서천과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형사가 전신타박상을 입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형사의 사진이 TV 화면에 뜨면서 앵커멘트 이어진다.

아나운서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지, 많이 놀라며 TV를 끈다.

썸 23 김형사의 집 / 아침

김형사의 어머니가 방 안에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빌고 있다.

(간절하게)

김형사어머니 천지신명님, 산신령님, 부처님, 예수님!
우리 아들 제발 좀 목숨만 살려 주세요.
데려 가지려면 이 미친한 것부터 데려가 주십시오.

그 때 의식을 회복한 김형사의 처가 들어온다.

김형사의 처 어머님까지 왜 이러세요.

김형사의 처와 김형사 어머니가 서로 껴안고 운다.

씬 24 경찰서 유치장 / 아침

김형사의 동료형사 몇 명이 나서천과 대면하고 있다.

박형사가 나서천의 멱살을 잡는다.

나서천 형স্য반! 이거 말로 합시다.

박형사 만약 우리 김형사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날엔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서천, 실실 웃는다.

박형사가 이에 화가 나서 나서천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려다가 동료형사들의
제지를 받는다.

나서천 범 좋아하시는 양반들이 이러면 쓰나?

씬 25 중환자실 앞 / 점심

강력반장, 초조하게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

의사와 간호사 함께 중환자실 앞으로 지나간다.

(의사를 붙들며)

강력반장 의사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의식불명인가요?

의사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환자가 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력반장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의사 면회는 오늘 오후 3시에 하시면 됩니다.

강력반장 네. 감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버리고 강력반장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서에 전화를 건다.

박형사 여보세요?

강력반장 나 강력반장이야.
일 들 잘 하고 있지?

박형사 네.

강력반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면회 잡혔으니 와.
끊어.

썸 26 윤지가 입원한 병실 / 오후

병실 안에 윤지와 의사, 간호사 함께 있다.

윤지 저 퇴원하고 싶거든요.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의사 퇴원수속 밟아 드릴게요.

윤지 병원비는 얼마 나왔어요?

의사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 형사 분께서 저희 병원에 충분한 액수의 돈을 맡겨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분께서 치료비를 제하고 남는 돈은 그 환자
분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병실에서 나간다.

윤지도 퇴원하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한다.

썸 27 중환자실 앞 / 오후

강력반장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형사의 처와 어머니가 강력반
장 앞에 나타난다.

강력반장은 김형사의 처와 어머니를 보고 인사드린다.

강력반장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형사어머니 우리 아들이 저 안에 누워있다면서요.

김형사의 처 의사선생님께 자초지종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강력반장 오후 3시쯤에 면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윽고 김형사의 동료형사들도 나타난다.
김형사의 처와 어머니를 보고 인사드린다.

동료형사들 죄송합니다.
김형사의 처 아니에요.
강력반장 면회시간 다 되었네요.
어머님! 들어가시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는 찰라
한 낯선 소녀가 중환자실 앞에 나타난다.

윤지 여기에 김형사님께서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동료형사들 네. 맞긴 맞는데 누구세요?

김형사의 어머니가 낯선 소녀를 보고 놀란다.

김형사어머니 우리 딸을 꼭 빼 닮았어.
마치 우리 딸 생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김형사의 처 누구신데 제 남편을 아세요?

윤지가 김형사의 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김형사의 처 저의 남편이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다음에 와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울먹이며)

윤지 형사님께서 저에게 단 하나 뿐인 사랑을 선물해주신 분이예요.
꼭 뵈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김형사의 처, 몹시 난처해한다.

동료형사들 같이 들어가시죠!
김형사어머니 며느라! 그러자구나.

모두들 함께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간다.

씬 28 중환자실 / 오후

김형사의 온 몸을 붕대가 촌촌 감고 있고,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다.

김형사어머니 불쌍한 우리 아들!

오. 내 새끼!

강력반장 자네 어서 일어나야지.

어머님 걱정하시는 거 안 보이는가?

김형사의 처, 복받쳐 나오는 눈물에 중환자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글썽인다.

씬 29 중환자실 앞 / 오후

윤지가 중환자실에서 나와 복도에 기대어 우는 김형사의 처에게 손수건을 건넨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김형사의 처 난 괜찮으니까 들어가.

좀 전에는 미안했다.

윤지 아니에요.

김형사의 처 이름이 뭐니?

윤지 이윤지예요.

이윤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김형사의 처 얼굴이 굳어진다.

윤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윤지 힘내세요. 아저씨는 꼭 깨어나실 거예요.

김형사의 처 고맙다. 윤지야!

강력반장이 김형사의 처를 위로하러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지켜 보고 다시 들어간다.

김형사의 처 우리 같이 들어가자꾸나.

윤지 예.

김형사의 처와 윤지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썸 30 중환자실 / 오후

김형사의 처 어머님!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남아서 아범을 살필게요.

김형사어머니 아범 깨어나는 거 보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

김형사의 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돼요.

강력반장도 김형사의 처 말을 거든다.

강력반장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김형사도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무리하시지 않길 바랄 거 예요.

김형사어머니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어멈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김형사의 처 네. 어머님

 강력반장님! 어머님 집까지 모셔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강력반장 네.

강력반장이 어머님을 모시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간다.

동료형사들도 모두 밖으로 나간다.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들어온다.

간호사 면회시간 끝났으니 모두 중환자실에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사의 처가 중환자실을 나가려는데 윤지가 아직도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김형사의 처 윤지야! 너 집에 안 가니?

윤지 저 집 없어요.

김형사의 처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니?

(재촉하며)

간호사 면회시간 끝났으니 어서 나가 주세요.

김형사의 처와 윤지가 함께 중환자실에서 나온다.

썸 31 김형사의 집 / 오후

강력반장,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 김형사의 어머니를 부축하여 내려 김형사의 처가 준 열쇠로 문을 열고 어머니를 방안까지 모셔다 드린다.

김형사어머니 내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내가 크게 대접할 건 없고 냉장고 안에 주스가 있을 거야.
주스 마시고 가.

강력반장 어머님도 참.
내가 무슨 손님이라고.

김형사어머니 내 말 들어.
그래야 내 맘이 편할 것 같아.

강력반장 예. 어머님
꼭 주스 마시고 갈게요.

강력반장,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거실에 나온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오렌지 주스가 있어서 컵에 따라
식탁에 앉아 마시는데 강력반장의 눈에 사진 하나가 관심을 끈다.
중환자실에서 봤던 소녀와 너무나 닮아서 유심히 쳐다본다.

썸 32 병원 앞 레스토랑 / 저녁

김형사의 처와 윤지가 테이블에 마주 보며 앉아 있다.
여종업원이 두 손님 앞에 온다.

여종업원 뭘 드시겠습니까?
김형사의 처 뭘 먹을래?
윤지 주스요.
김형사의 처 여기 주스 두 잔요.

(고개 숙여 인사하며)

여종업원 네.

여종업원 돌아간다.

김형사의 처 그 동안 어떻게 살았니?

윤지 머뭇거리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김형사의 처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윤지 아니에요. 말할게요.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며 윤지가 말문을 연다.

썩 33 윤지의 회상

윤지(나레이션)어떤 미혼모 한 분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저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나중에 고아원장님께 들었죠.
 저를 버린 부모님이 참 원망스러웠죠.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더 열심히 이 악물고 살아 부모님이 날 버린 걸
 후회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근데 맘과 달리 학교생활은 순탄치 못했어요.
 학교에 처음 취학하던 날은 그 시작이었어요.

화면에 윤지의 처음 학교 들어가는 날 정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윤지(나레이션)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어리광을 부리며 활짝
 웃고 있는데 저는 고아원장의 손에 이끌려 학교에 처음 온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실 안에 들어갔어요.

아이1 난 부모님이 로봇 사줬어.

아이2 난 부모님이 레고 세트 사줬어.

윤지(나레이션)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 준 선물을 자랑하고 있는데 전 빈 손이었요.

저는 학교 안에서 늘 외톨이였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고 나랑 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에겐 늘 고아원 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녔어요.

씬 34 병원 앞 레스토랑 / 저녁

장면전환 되어 김형사의 처와 윤지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
여종업원이 주스 두 잔을 갖다 놓고 간다.
김형사 처, 아니 이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씬 35 윤지의 회상 2

다시 윤지의 이야기가 계속 되자 화면은 윤지가 쉬는 시간에도 교과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윤지(나레이션)날 버린 부모님이 많이 밍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럴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커져 갔어요.

난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공부만 했어요.

나에겐 그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저는 쉬는 시간까지 교과서를 읽고 있었어요.

여학생1 야! 이윤지

윤지(나레이션) 저는 들은 척 만 척하고 계속 책을 읽었어요.

여학생1 어라. 이 년이 내 말을 씹어.
 너 열라 공부만 하는데.

윤지(나레이션)마지못해 저도 한 마디 했어요.

윤지 나한테 왜 이러는데?
여학생1 그걸 몰라서 물어? 이 년아!
 너 학교서 소문이 자자해.
 너는 아는가 모르겠다만

윤지 뭘 소문?

여학생1 애가 귀를 막고 사네.
 니네 아버지 조폭이라면서.

윤지 그게 무슨 소리야? 조폭이라니

여학생1 나도 잘은 모르지만 서천과 두목이 니네 아버지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긴가민가야.

윤지(나레이션)저는 그 날 밤 짐을 싸들고 고아원을 몰래 빠져 나왔어요.
저는 부모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서천과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니
미친 년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공원벤치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녘에 길거리에서 걷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형사님이 쓰러진 저를 발견해 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어요.

씬 36 병원 앞 레스토랑 / 저녁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김형사의 처 아. 그랬었구나.
 주스 어서 먹어라.

윤지, 주스를 마신다.

윤지 주스를 마시다가 불현듯 소리 지른다.

윤지 아! 나서천
 왜 이제야 생각이 나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지 주스 잘 마셨어요.
 죄송한데요. 급히 어디 가볼 데가 있어서요.

윤지가 주스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급히 뛰어나간 후 김형사의 처 혼자
앉아있다.

김형사의 처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윤지야. 날 용서해다오.

김형사의 처가 눈물을 흘린다.

씬 37 경찰서 안 / 저녁

윤지, 황급히 경찰서 안으로 달려온다.

(윤지를 반갑게 맞이하며)

박형사 아가씨가 여기 웬 일이야?

윤지 나서천 어디 있어요?
 꼭 만나야 돼요.

박형사 네가 왜 그 흉악무도한 놈을 만나려는데?

(소리를 지르며)

윤지 나서천 어디 있냐고요?

박형사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어딴어?

윤지 그니까 빨리 나서천 만나게 해달란 말이에요.

박형사 만나게 해 줄 테니 조용히 좀 해.

씬 38 경찰서 유치장 / 저녁

나서천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있고 윤지가 나서천을 쳐다보고 있다.

나서천 실례지만 누구신가?
 난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윤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윤지가 나서천의 딸이라는 게 맞아요?
나서천 난 모르는 일이야.
 경찰 양반! 이 애 좀 내보내.
 나 이 애와 말씨름할 기분 아니거든.

형사가 윤지를 내보내려고 하자 윤지 안 나가려고 버틴다.

박형사 이봐. 아가씨!
 나서천이 모른다잖아.
윤지 정말 이윤지라는 이름 몰라요?
 정말요?

윤지는 아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온다.

씬 39 중환자실 / 저녁

김형사, 전신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고 김형사의 처가 애처롭게 이를 쳐다보고 있다.

김형사의 처 당신이 그 좋아하던 간고등어 사왔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당신 내 맘 좀 이라도 안다면 어서 일어나.

김형사의 처, 눈물이 흘러 눈시울을 적신다.
그 때 윤지가 꽃다발을 들고 중환자실에 들어온다.

윤지 저 왔어요.

김형사의 처가 윤지를 보고 반가워한다.

김형사의 처 웬 꽃다발이야?

윤지 아저씨가 이 꽃 보시고 기운 내셔서 빨리 일어나시라고요.

김형사의 처 고맙다. 윤지야!

윤지가 꽃을 꽃병에 꽂아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김형사의 처 아까 전에 일은 어떻게 잘 됐니?

(한 숨을 쉬며)

윤지 잘 안됐어요.

(작은 혼잣말로)

김형사의 처 아마 그럴 테지.

윤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황하며)

김형사의 처 아니. 아무 것도 아니야.

 꽃이 참 예쁘네.

윤지, 방긋 웃는다.

김형사의 처 그건 그렇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윤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김형사의 처 내 집에서 사는 게 어떻겠니?

 때마침 어머니 보살펴 주실 분을 구해야 할 판이었는데

 네가 같이 살면서 어머니 식사도 챙겨 드리고 집도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윤지 정말 그래도 돼요?

김형사의 처 그럼.

윤지, 대단히 기뻐한다.

김형사의 처 나와 같이 집에 가자!

윤지 네.

씬 40 김형사의 집 / 늦은 저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며)

김형사의 처 어머님! 저 왔어요.

건넌방에 있던 김형사의 어머니가 거실에 나온다.

김형사어머니 어멈 왔나?

김형사의 처 네. 어머니

뒤에 있던 윤지가 어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드린다.

윤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형사어머니 어멈아.

애는 왜 오게 된 거냐?

김형사의 처 앞으로 저희와 같이 살 애예요.

더불어 저가 없을 때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어머니 적적하실 때 말동무도 해드릴 거예요.

김형사어머니 그건 좋은데 생전 우리 딸과 너무 많이 빼 닦았어.

김형사의 처 어머님도 참.

또 지난 일을 들추시고.

김형사어머니 내가 그 앨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아직도 생생한데

김형사어머니, 눈물로 눈시울을 적시다가 건넌방으로 들어간다.

김형사의 처 윤지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윤지 네.

김형사의 처 윤지야! 저녁은 먹었니?

윤지 네.

윤지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온다.

윤지, 민망해 한다.

김형사의 처 앞으론 식사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말 해.

 숨기지 말고

윤지 네.

김형사의 처 솔직히 나도 좀 배고프거든

 같이 식사하자!

윤지 네.

김형사의 처가 주걱으로 밥솥에서 밥 두 그릇을 담아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윤지와 함께 식사한다.

썸 41 김형사 집의 안방 / 밤

김형사의 처와 윤지가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있다.

(윤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김형사의 처 오늘만 우리 함께 자자!

 그래도 좋지?

윤지 네.

윤지, 많이 피곤한 지 이내 잠이 든다.

윤지의 자는 모습을 보다가 김형사의 처도 잠이 든다.

썸 42 김형사 집의 안방 / 아침

윤지, 잠에서 깨어 보니 김형사의 처는 없고 쪽지 하나만 보인다.

윤지, 쪽지를 펼쳐본다.

김형사처(나레이션)

 네가 이 쪽지를 펼쳐 읽을 쯤 이면 난 병원에

있을 거야.
거실에 가 보면 내가 상을 차려 놓았거든.
밥솥에서 밥 두 그릇만 퍼 담아서 어머님과
함께 식사해라.
난 이미 식사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제 너와 함께 지냈던 밤은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윤지, 눈에서 눈물이 핑 돈다.

윤지는 건넌방에 가서 할머니를 깨운다.

윤지 할머니! 아침진지 드세요.
김형사의 어머니는 일어나 윤지를 바라본다.

윤지 할머니! 국 다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김형사어머니 그러자구나

윤지와 김형사의 어머니는 나란히 식탁에 앉아 아침식사를 한다.

김형사어머니 네 이름이 뭐니?

윤지 이윤지에요.

김형사어머니 올해 몇 살이니?

윤지 16살이에요.

김형사어머니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면 15살 정도 되었을 텐데.

김형사의 어머니는 눈물로 눈시울을 적신다.

썸 43 경찰서 / 아침

강력반장 들어오는데 박형사와 이형사는 잡담을 나누고 있다.

박형사 나 요즘 온에어 매 주 보고 있어.
처음엔 아내가 보 길래 난 그냥 옆에서 따라 봤는데
요즘엔 내가 먼저 온에어 챙겨 본다니까.

이형사 선배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런데.
강력반장 잡담할 시간 있으면 범인 잡을 궁리나 좀 더 해.
박형사 네.

강력반장 자리에 앉는데 박형사가 다가온다.

박형사 반장님!
강력반장 왜?
박형사 어제 저녁에 그 애가 왔어요.
강력반장 그 애라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속 시원히 좀 말해봐.
박형사 반장님!
 그 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김형사님 입원한 병원 중환자실에 찾아왔던
 그 소녀 말이에요.
강력반장 그 애가 왜?
박형사 그 애가 글썄 나서천을 꼭 만나야 한다며 막 소리까지 지르지
 않습니까?
강력반장 그래서?
박형사 나서천과 만나게 해 줬는데요.
 저도 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윤지가 나서천의 딸이냐고
 물으니 나서천 그 자식이 모른다고만 하던데요.
강력반장 이윤지라?
 당장 나서천 조사실로 데려와.
박형사 예.

씬 44 중환자실 / 아침

김형사의 처가 누워있는 김형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형사의 처 당신 그거 생각나?
 당신과 처음 만나던 그 찻집

그 찻집에서 틀어주는 노래가 너무 좋다며
싱글벙글 하던 당신 모습
나 힘들어서 어딘 가에서 뛰어 내릴 까도 생각했었어.
근데 당신 그 모습에 나 처음으로 웃었다.
나 당신께 많이 부족한 여자라는 거 잘 알아.
근데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당신 하나만 사랑하다 죽을 거야.
내 맘 알아준다면 어서 일어나.

그 때 김형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김형사의 처, 많이 놀라서 의사선생님 부르러 뛰어 나간다.
김형사의 처와 의사, 간호사 들어온다.
의사는 손으로 김형사의 양쪽 눈을 떠 보며 플래시를 비쳐본다.

의사 생리적 반응의 일종입니다.
김형사의 처 생리적 반응의 일종이라뇨?
 이렇게 손끝을 움직였는데요.
의사 땀을 흘리거나 체액이 분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설명에 김형사의 처는 낙담한다.

의사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앞으로도 무슨 반응이 있으면 호출해주세요.
김형사의 처 네.

의사과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나간다.

썸 45 경찰서 조사실 / 아침

강력반장과 나서천이 마주 앉아있다.

나서천 이 수갑 갑갑한데 좀 풀어주셔?
 무죄 추정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강력반장이 박형사를 부른다.

강력반장 이봐. 박형사
나서천 수갑 풀어.

박형사 강력반장님!
안 됩니다.
나서천은 흉악무도한 놈이어서 언제 반장님을 해치고
도망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를 내며)

강력반장 무슨 말이 많아.
내가 풀라면 푸는 거지.

마지못해 박형사는 나서천의 수갑을 푼다.

강력반장 나가 있어.
김형사 반장님!
혼자 계신 건 위험합니다.

(다시 큰 소리를 내며)

강력반장 나가 있으란 말이야.

박형사, 조사실에서 나간다.

강력반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거짓말 했다간 아가리를 쳐 박을 수 있어.

(심각하게)

강력반장 이윤지와 어떤 사이야?
나서천 아까 다른 형사 말 듣지 않았습니까?
강력반장 묻는 말에만 대답해.
이윤지와 어떤 사이야?
나서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강력반장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게 그렇게 찾아와 소란을 피워.
나서천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요.

(떡살을 잡으며)

강력반장 너 죽고 싶어?
나서천 절 왜 그 애와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강력반장 죽고 싶지 않으면 바른 대로 실토해.
나서천 나 참 환장하겠네.
이 떡살 좀 놓고 얘기합시다.

강력반장, 나서천의 떡살을 놓는다.

썸 46 김형사의 집 / 아침

윤지가 김형사의 어머니와 식탁에 마주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윤지가 식사를 하다가 김형사의 어머니에게 묻는다.

윤지 할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형사어머니 뭐가?
윤지 할머니 맘 아프실 것 같아서 여쭙보기가 그런데요.
김형사어머니 괜찮으니까 물어봐라.
윤지 할머니 손녀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김형사의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진다.

김형사어머니 지금부터 5년 전 이 맘 때 일이었지.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우리 딸 채린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혼자 걸어오고 있었어.
집과 학교 사이 거리도 별로 멀지 않고 채린이가 늘 아무 탈 없이
잘 다니던 길이라 우리도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
채린이가 집에 거의 당도할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 명이
내려서 순식간에 채린이를 납치해갔어.

채린이가 소리를 질러서 뛰어나왔는데 채린이가 차 안에 갇혀 빠져나오려고 말버둥치고 있었어.

그게 채린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윤지 근데 채린이를 누가 납치한 거예요?

김형사어머니 그 나서천인가 뭔가 하는 놈 짓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우리 채린이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윤지 나서천이 한 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김형사어머니 그 놈이 친절하게도(??) 자신이 채린이 잡아갔다고 편지까지 보내왔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화와 편지를 통해 그 놈에게 빌고 또 빌고

그 놈 원하는 것 다 들어줄 테니 채린이만 살려 보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결국 우린 채린이를.

김형사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

썸 47 경찰서 조사실 / 아침

강력반장 박형사! 이형사! 들어와

박형사와 이형사가 함께 조사실에 들어온다.

박형사 반장님! 부르셨습니까?

강력반장 지금 당장 그 소녀 데려 와.

박형사 그 소녀라뇨?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력반장 자꾸 긴 말 하게 할래?

며칠 전 나서천 찾아 왔다는 그 소녀 있잖아.

(난감하게)

박형사 그 소녀는 이미 돌려보냈는데요.

강력반장 지금 그 소녀 여기 데려와.

박형사 반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강력반장 내가 지금 자네와 아침부터 농담이나 하게 보이나?
박형사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두 번 얼굴 본 게 단데 어떻게 찾습니까?
강력반장 이 오달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찾아.
 찾아서 24시간 안에 내 앞에 데려와.

(불쌍한 눈초리로)

박형사 반장님!
강력반장 못 찾기만 해. 너희들 상판때기를 대패로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

마지못해 박형사와 이형사 소녀를 찾으러 경찰서를 나선다.

나서천 대질심문이라도 하시게요.
강력반장 필요하다면 대질심문도 해야지.

썸 48 소녀를 찾는 박형사와 이형사

경찰서 앞에 박형사와 이형사가 서 있다.

박형사 이형사! 우리 흠어져서 찾아보자구.
이형사 네. 선배님.
박형사 나중에 이 장소에서 다시 보자구.
이형사 네.

박형사와 이형사가 흠어져서 소녀가 있을만한 데를 들어가 본다.

박형사는 PC방에 들러서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게임하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본다.

이형사는 영화관에 들러 영화관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좌석마다 다 돌아다니며 쳐다본다.

박형사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좌석을 돌아다니며 책 읽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본다.

이형사는 모텔 주인의 허락을 받아 호실마다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펴본다. 한 방에서는 여자가 옷 갈아입고 있는데 불쑥 들어갔다가 여자에게 치한

으로 몰려 핸드백으로 맞고 나온다.

박형사는 짐질방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소녀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형사는 맞은 곳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처음 장소에 돌아온다.

박형사도 조금 있더니 처음 장소에 돌아온다.

박형사 그래 소녀는 찾았어?

이형사 아니. 못 찾았어요.

박형사가 이형사 맞은 것을 발견한다.

박형사 무슨 일이야? 그 멍은

이형사 저 여자한테 맞았어요.

박형사 어디서 왜?

이형사 모텔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여자가 옷을 갈아입다가 나보고
기겁을 해서 막 핸드백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박형사 이 바보야.

 네가 거길 왜 들어가?

이형사 소녀가 거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가 지는 것을 보며)

박형사 이를 어찌
 벌써 저녁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형사 밥 먹고 찾지요!

박형사 넌 지금 밥이 이 상황에서 넘어 가냐?

이형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박형사 너 지금 어디 놀러 왔어?

박형사,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박형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나와 어디 가보자.

이형사 아. 배고픈데

박형사 식사는 이따가 와서 배부르게 실컷 먹어.

박형사와 이형사가 급히 차를 타고 간다.

씬 49 중환자실 / 저녁

김형사의 처가 누워있는 김형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형사의 처 당신은 이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난 당신을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미안해.
당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대답해봐.

씬 50 중환자실 앞 / 저녁

그 때 중환자실 밖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박형사와 이형사가 간호사의 제지를 받고 있다.

간호사 여기는 환자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박형사 아따. 미치겠네.
저희들은 김형사의 동료형사라니까요.

실랑이가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김형사의 처가 나온다.

김형사의 처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 이 분들이 자꾸 중환자실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김형사의 처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김형사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형사들이에요.

(무안해하며)

간호사 아. 그러세요.

박형사 거봐요.
우리 말은 쿵으로 메주를 썬도 안 믿더니.

간호사, 황급히 자리를 떠난다.

김형사의 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형사 이순옥여사님의 아름다운 미모도 보고 김형사님 상태도 궁금해서 검사검사 왔습니다.

김형사의 처, 잠시 웃는다.

김형사의 처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박형사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서 봤던 그 소녀 있지 않습니까?

김형사의 처 그 소녀가 왜요?

박형사 그 소녀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김형사의 처 그 소녀를 왜 찾는데요?

박형사 강력반장님께서 나서권을 조사하고 계신데 그 소녀와 대질심문을 하려고 하나봅니다.

김형사의 처 뭘 대질심문 하려는데요?

박형사 그건 저희도 수사기밀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혹시 그 소녀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사의 처, 한동안 망설인다.

박형사와 이형사는 김형사의 처가 소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여기고 가려고 한다.

김형사의 처 저

김형사의 처 말에 박형사와 이형사는 가려다가 다시 돌아온다.

박형사 뭐 하실 말씀이라도

김형사의 처 저희 집에 소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놀라며)

박형사 정말이세요?

김형사의 처 네.

박형사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강력반장님한테 대패로 밀릴 일 없겠네요.

(어안이 병병하여)

김형사의 처 네?

박형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김형사의 처 네.

씬 51 길가에서 / 저녁

박형사가 운전을 하며 전화를 하고 있다.

박형사 반장님!
 그 소녀를 찾았습니다.

강력반장 수고 많았네. 박형사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 출근할 때 그 소녀
 데리고 오게.

박형사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장님!

씬 52 김형사의 집 / 밤

윤지, 잠이 안 오는지 몸을 이리저리 뒤척인다.

윤지 엄마! 어디 있는 거야?
 보고 싶어.

윤지, 이불을 덮어쓰고 울다 잠이 든다.

씬 53 중환자실 / 아침

누워있는 김형사 옆에서 김형사의 처가 졸고 있다.
김형사의 손가락이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김형사의 처 잠이 깨다가 김형사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김형사의 처, 놀라서 벌떡 일어나 의사선생님 부르러 뛰어 나간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 김형사의 처 세 사람이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온다.

김형사의 처 우리 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사는 환자의 눈을 뜨게 해서 플래시로 비춰본다.

의사 환자 분 상태가 호전되고 있네요.
 앞으로도 다른 현상 나타나면 호출 해주세요.

김형사의 처 네.

의사와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나간다.

(김형사의 손을 꼭 잡으며)

김형사의 처 눈물이 내려네. 당신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데 왜 내 눈에선
 눈물만 나오나 몰라.

김형사의 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

김형사의 처 당신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김형사의 처, 중환자실 밖으로 나온다.

씬 54 중환자실 앞 / 아침

김형사의 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전화를 건다.
화면 분할되어 왼쪽화면에는 김형사의 처가 전화를 걸고 있고, 오른쪽 화면에는
윤지가 전화를 받고 있다.

윤지 여보세요?

김형사의 처 윤지니?

윤지 네.

김형사의 처 뭐하고 있었니?

윤지 막 일어나서 이제 아침식사준비하려고 했어요.
 김형사의 처 수고가 많구나.
 윤지 수고는 필요.
 김형사의 처 어머님 계시면 좀 바꿔줘라.
 윤지 네.

윤지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부르러 건넛방으로 건너간다.
 할머니가 윤지의 부축을 받으며 건넛방에서 거실로 걸어 나온다.

(수화기를 들며)

김형사어머니 전화 바꿨습니다.
 김형사의 처 채린이 엄마예요.
 김형사어머니 그래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고?
 김형사의 처 우리 이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김형사어머니 정말이냐?
 김형사의 처 네.

(감격하여)

김형사어머니 천지신명님! 부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노인의 청 들어주셔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김형사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운다.

김형사의 처 어머님! 이 좋은 날에

김형사의 처도 말을 잊지 못하고 함께 운다.
 윤지는 손수건을 할머니에게 건넨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는다.

김형사어머니 애미가 수고가 많다.
 김형사의 처 아니예요. 어머님
 김형사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식사 꼭 제 때 챙겨먹고
 김형사의 처 예.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김형사의 처 오냐. 이만 끊으마.

할머니,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화면분할 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의 화면이 된다.

썸 55 김형사의 집 / 아침

김형사어머니 윤지야!

윤지 네. 할머니!

김형사어머니 아범이 손가락을 움직였다구나.

(놀라며)

윤지 그게 정말이에요?

김형사어머니 암.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직접 아범 얼굴을 봐야겠구나.

날 아범한테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윤지 네. 할머니

윤지, 쌀을 씻어서 안치고 국을 끓인다.

썸 56 중환자실 / 아침

김형사의 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중환자실에 들어간다.

김형사의 처, 의자에 앉아 입을 불어가며 커피를 조금씩 훌쩍 마신다.

(누워있는 김형사를 바라보며)

김형사의 처 당신 그 거 생각나?

우리 데이트 할 때 당신은 자판기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그랬잖아.

나 당신 맘 알고 있었어.

남들같이 번듯한 레스토랑 하나 못 데려가도 나 당신 곁이라서
늘 행복했었어.

김형사의 처는 누워있는 김형사의 손을 꼭 잡는다.

씬 57 김형사의 집 / 아침

김형사의 어머니와 윤지가 식탁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김형사어머니 윤지의 부모님은 뭐 하시니?

윤지,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눈치를 챈 할머니가

김형사어머니 미안하다. 윤지야.

이 방정맞은 입이 주책이지.

윤지 아니예요. 할머니

그 때 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윤지 누구세요?

박형사 경찰입니다.

윤지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박형사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지가 대문을 열어준다.

박형사와 이형사가 들어오다가 거실에 있는 할머니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한다.

박형사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김형사어머니 나야 뭐 별 일 있겠는가?

그래 자네들은 무슨 일로 왔는가?

박형사 저 소녀와 함께 경찰서에 갈 일이 있습니다.

(의아하게 여기며)

김형사어머니 우리 윤지가 뭐 잘못이라도 했는가?

(놀란 얼굴로)

박형사 아닙니다.
 잠시 소녀에게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김형사어머니 그런가?
 오늘 아범 얼굴 보러 병원에 가려했는데 뭐 할 수 없지.

박형사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들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 게요.

김형사어머니 형사양반들 바쁠 텐데 그래도 괜찮겠는가?

박형사 예. 어머님
 어머님! 식사 천천히 드시고 가실 준비 되시면 나오세요.
 저희들은 잠시 바람 좀 쐬러 밖에 나갔다 올게요.

박형사와 이형사가 대문을 열고 나간다.

씬 58 골목길 / 아침

박형사와 이형사가 나란히 골목길을 걷고 있다.

이형사 박형사님!
 그 소녀가 운지일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박형사 아직 단정하긴 일러.
 그 소녀의 성을 모르잖아.

이형사 그건 그렇네요.

박형사 이형사!

이형사 네?

박형사 우리가 경찰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가네.
 세월이 참 빠르구만.

이형사 아직 선배님 소 한 마리 정도는 한 손으로 너끈히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박형사 이형사! 말이라도 고맙구만.

이형사 참말입니다. 선배님
 왜 저의 진심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박형사 그래서 고맙다지 않는가?
 그건 그렇고. 이제 돌아 가보자고

이형사 네. 박형사님

썸 59 경찰서 조사실 / 아침

강력반장이 나서천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화면에 나서천에 관한 자료가 클로즈업되어 보인다.
잠시 강력반장은 경찰서 안에 걸린 벽시계를 쳐다본다.

강력반장 박형사, 이형사는 왜 아직도 오지 않는 거야?

그 때 박형사와 윤지가 함께 경찰서에 들어온다.

강력반장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박형사 네?

강력반장 아니. 아무 것도 아니야.

근데 이형사는 왜 안 보여?

박형사 이형사는 김형사의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러 갔습니다.

강력반장 잘했어. 안 그래도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박형사! 나서천 조사실로 데려와.

박형사 예! 반장님

박형사, 나서천을 데리러 유치장으로 간다.

썸 60 중환자실 / 아침

김형사의 처가 누워있는 김형사 옆에 앉아 김형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형사의 처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16년 전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때 김형사의 어머니와 이 형사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하다가 김형사의 처 목소리에 김형사의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김형사의 처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

김형사의 처 나 그 사람과 당신이 이렇게 부딪히길 바라지 않아요.

비록 채린이를 잃었지만 우리 윤지 함께 잘 키워가요.

그 때 김형사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김형사의 처 뺨을 때린다.

(어안이 병병하여)

김형사의 처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강경하게)

김형사어머니 왜 그러냐고?

그건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이 병원에서 썩 나가거라.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김형사의 처 어머님!

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큰소리로)

김형사어머니 어머님 소리도 듣기 싫으니 썩 나가.

그 때 누워있는 김형사의 맥박이 급박하게 뛰며 경련이 일어난다.

김형사, 눈을 뜬 채로 온 몸을 부들부들 떠다.

이형사는 의사를 부르러 달려간다.

김형사어머니 네 같은 재수 없는 것이 들어오니 우리 손녀 채린이를 잃고
아범까지도 저렇게 된 거야.

(격양하며)

김형사의 처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김형사어머니 저렇게 바락바락 한 마디도 안지고 대드는 거 좀 봐라.

김형사의 처, 울며 중환자실에서 뛰쳐나간다.

김형사의 처는 복도 맨 끝 모퉁이에 가서 벽에 기대어 서럽게 울다가 주저앉는다.

의사와 간호사가 이형사와 함께 중환자실에 급히 달려온다.

의사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김형사어머니 좀 전부터 갑자기 이러기 시작했어요.
의사 빨리 신경안정제 투여해 줘.

간호사,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조금 후에 김형사가 경련을 멈추고 숙면에 들어간다.

의사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급히 호출해주세요.
김형사어머니 네. 의사선생님!

의사와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나간다.
김형사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 숨을 내쉰다.
이형사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 울고 있는 김형사의 처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이형사, 말을 못 붙이고 그냥 울고 있는 김형사의 처를 바라본다.

썸 61 경찰서 조사실 / 아침

강력반장이 중간 자리에 앉고 나서천과 윤지가 마주보고 앉아있다.

(나서천과 윤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강력반장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
윤지 네.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강력반장을 쳐다보며)

나서천 이 판 거 마루 합니까? 하나하나인데.

(나서천을 쏘아보며)

강력반장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했지.

한동안 냉기류가 조사실을 가득히 덮는 분위기다.

(윤지를 바라보며)

강력반장 이름?

윤지 윤지요.

강력반장 성까지.

윤지 이윤지요.

강력반장 생년월일?

윤지 1993년 4월 22일요.

강력반장 네가 며칠 전 나서천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뭐야?

윤지 설명하려면 좀 긴데 그래도 돼요?

강력반장 해봐.

윤지 저가 지금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었거든요.

강력반장 왜?

윤지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묻지 말아 주세요. 다신 그 때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강력반장 며칠 전 나서천은 왜 만나러 온 거야?

윤지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저에게 서천과두목이 네 아버지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해 줬어요.

나서천 어떻게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문이 다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강력반장 나서천!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지.

 계속 해봐.

윤지 그 말을 믿어야 할 지 말지 솔직히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강력반장 밖에 박형사 들어와.

박형사가 조사실 안으로 들어온다.

강력반장 나와 윤지는 잠시 밖에서 할 얘기 있으니 나서천 잘 지키게.

박형사 네. 반장님!

강력반장이 윤지와 함께 조사실을 나간다.

씬 62 병원 앞 뜰 / 아침

김형사의 처가 녀 나간 사람처럼 벤치에 앉아 먼 산을 쳐다보고 있다.

김형사의 처를 이형사가 멀찌감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혼잣말로)

이형사 저 속이 속이겠어?

썸 63 경찰서 앞 뜰 / 아침

강력반장과 윤지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다.
강력반장, 윤지를 유심히 쳐다본다.

윤지 저 얼굴에 뭐 묻었어요?

강력반장 아니.

윤지 아닌데 왜 그렇게 쳐다봐요?

강력반장 보면 볼수록 생전에 김형사의 딸 채린이와 정말 많이
 닮았어.

윤지 세상에 누구 닮은 사람이 저 하나뿐인가요?
 그 얘기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 예요?

강력반장 성격도 채린이를 꼭 닮았어.
 채린이도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걸 참 싫어했거든.

잠시 두 사람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강력반장이 말문을 연다.

강력반장 김형사가 5년 전 서천파로 인해 채린이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켜보는 내내 짠했지.
 처음엔 김형사가 그 못 마시는 술을 밤낮없이 마셔대는 바람에
 거의 폐인이다시피 했었지.

 이제 그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는데

윤지 악연이네요.

강력반장 악연이다마다.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러는 건지

윤지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난다.

강력반장 아가씨가 배고픈가 보네.
 나도 출출했었는데 같이 탕수육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이 근처에 탕수육 잘하는 집 있거든.
윤지 네.

강력반장과 윤지 자리에서 일어난다.

썸 64 중환자실 / 점심

김형사의 어머니가 피곤한 지 누워있는 김형사 옆에서 졸고 있다.
김형사, 눈을 뜨고 손을 움직여 김형사의 어머니 팔을 두드려 깨운다.
김형사어머니 잠에서 깨어나 김형사를 쳐다본다.

김형사어머니 아범! 정신이 드는가?

(어눌한 발음으로)

김형사 순옥이 좀
김형사어머니 순옥이 불러달라고?

김형사가 눈을 깜박인다.
김형사어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온다.
복도 끝에 김형사의 처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이형사가 김형사어머니가 복도 끝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간다.

이형사 어머님! 몸도 불편하신데 앉아 계시지요.
김형사어머니 아범이 깨어나서 순옥이를 불러달라고 그러네.

이형사, 김형사의 처에게 가서 소식을 전한다.
김형사의 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중환자실까지 뛰 들어온다.

(의자에 앉아 손으로 김형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김형사의 처 나 당신 이렇게 된 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김형사의 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어눌한 발음으로)

김형사 미안해.

김형사 손을 움직여 김형사의 처 얼굴을 쓰다듬는다.

김형사의 어머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이 광경을 보고 되돌아가 복도의자에 앉는다.

자막에 ‘6개월 후’ 라는 문구가 떴다가 사라진다.

씬 65 병원 앞 뜰 / 오후

김형사의 처가 김형사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앞 뜰을 거닐고 있다.

김형사의 처 나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또 당신과 결혼해서 살 거야.

김형사 나 휠체어 탄 거 안 보여.

 이래도 나와 결혼할거야?

김형사의 처 응.

 휠체어 탄 거만 빼고

김형사 웃는다.

김형사 웃는 모습을 보고 김형사의 처도 따라 웃는다.

김형사의 처 우리, 윤지 입양하는 게 어때요?

김형사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잠시 후 윤지와 할머니, 강력반장, 동료형사들이 잇따라 찾아온다.

김형사어머니 아범! 그 동안 수고 많았다.

김형사 어머님께 걱정만 끼쳐 드렸는데요.

 어머님! 저희, 윤지 입양하기로 했어요.

김형사어머니 다른 애는 몰라도 윤지는 절대 안 된다.

김형사 어머님! 왜 그러시는 데요?

김형사어머니 윤지는 바로 채린이를 죽인 나서천의 딸이다.

윤지와 김형사를 비롯한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 모두 놀란다.

김형사 당신 그게 사실이야?

김형사의 처, 말없이 가만히 있다.

김형사어머니 데려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윤지, 울면서 멀리 뛰어가 버린다.

강력반장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형사와 이형사가 윤지가 뛰어간 곳으로 뛰어간다.

강력반장 김형사 퇴원하는 이 좋은 날에 이 무슨 일입니까?

씬 66 공원 / 오후

윤지가 공원벤치에 앉아 울고 있다.

박형사와 이형사가 멀찌감치서 윤지를 쳐다보고 있다.

박형사 딱하기도 하지.
 아버지가 조폭두목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겠지.
 그것도 철천지 원수의 딸이니.

씬 67 병원 앞 뜰 / 오후

김형사의 처가 김형사어머니에게 따지고 있다.

김형사의 처 그래도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지가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김형사어머니 내가 못할 소리를 했냐?
 그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언제까지 덮어둘 생각이냐?

김형사의 처 어머니! 그 애가 받을 마음의 상처는 생각도 안 해 보세요?
김형사어머니 니 딸이라고 역성드는 거 좀 봐라.

김형사 얼굴이 굳어진다.
강력반장과 동료형사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난다.

씬 68 공원 / 오후

윤지가 박형사에게 부탁하고 있다.

윤지 저 좀 나서천 있는 곳에 데려다 주세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박형사 지금 나서천은 교도소에서 복역중이야.

윤지 꼭 만나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박형사 네가 정 그렇고 싶다면 데려다 주마.

윤지가 박형사의 차를 타고 나서천이 복역중인 교도소로 간다.

씬 69 교도소 / 오후

교도관이 나서천을 면회실로 데려온다.

창을 사이에 두고 윤지와 나서천이 만난다.

나서천 이게 누구신가? 그 아가씨 아닌가.

 나한테 면회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윤지 아버지! 저 왔어요.

나서천 아가씨! 번지를 잘못 찾아온 가보네.

윤지 다 알고 왔어요.

윤지, 그렇그런 눈물을 흘린다.

(체념한 듯)

나서천 알았냐?

윤지 아버지! 왜 저에게마저 아버지인 걸 속이셨어요?

나서천 내가 무슨 낱으로 너에게 아버지라고 말 할 수 있겠냐.
윤지 아버지가 어때서요?
 남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해도 전 아버지 안 부끄러워요.
나서천 이 아버지는 잊어라.
 이 아버지는 너에게 짐만 될 뿐이야.
 그리고 너 엄마와 행복하게 잘 살길 이 아버지는 바란다.
윤지 엄마요?
나서천 김형사의 부인이 바로 너 엄마야.
윤지 그럼 채린이가 저 이복형제였던 거 예요?
나서천 그래.
윤지 그럼 채린이는 왜 죽인 거 예요?
나서천 그 땐 나도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썸 70 나서천의 회상

서천과의 부두목 양철진이 나서천을 급히 찾아온다.
나서천은 사업상 거래업체 사장과 바둑을 두고 있다.

부두목 형님!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나서천 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부두목 찾았습니다.
나서천 뭐 말이야?
부두목 형님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사람을 찾습니다.
나서천 답답하니까 얼른 말해.

부두목, 머뭇거린다.

나서천 너 나한테 오늘 뒤지게 맞고 싶어? 얼른 말해.
부두목 그게 저
나서천 너 나한테 한 대 맞아 볼래.
부두목 형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남편이 형사랍니다.
나서천 뭔 소리야? 자세히 좀 말해봐.
부두목 형님의 첫사랑이라고 하시던 이순옥씨를 찾았습니다.

근데 형사와 10년 전에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나서천 어디 사는지 알아봤어?
부두목 송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딸이 채린이인데 10살입니다.
다니는 학교까지 알아봤습니다.

부두목 나간다.

나서천 저가 더는 바둑 둘 기분이 아니네요.

거래업체 사장, 인사만 하고 혈레벌떡 나가버린다.
나서천 소파에 앉아 있다.
나서천 혼자 증얼거린다.

나서천 순옥이만 행복하다면 난 괜찮아.
그래 괜찮은 거야.

나서천, 애써 스스로를 달래어 본다.
그 때 부두목이 다시 들어온다.

부두목 방금 새로운 소식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나서천 이번에 뭐야 또?
부두목 채린이 이외에 이순옥의 자식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애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나서천 그게 단가?
부두목 그 애 이름이 이윤지라고 합니다.
형님 들으시면 기분 상하실까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서천 뭐야? 말해.
부두목 그 애가 형님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서천,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는다.

나서천 빨리 그 집 연락처 알아봐.
부두목 네. 형님!

부두목 나간다.

나서천, 탁자 위에 있는 집기들을 모두 손으로 떠밀어 바닥에 떨어뜨린다.

씬 71 교도소 / 오후

잠시 현실로 돌아온다.

윤지와 나서천이 창 사이로 서로 쳐다보고 있다.

윤지 채린이를 죽일 필요까진 없었잖아요.

 꼭 그러셨어야 해요?

나서천 너에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 땐 나도 뭘가에 썩었나보다.

씬 72 나서천의 회상 2

부두목이 문 앞에서 노크한다.

나서천 들어와.

부두목이 들어온다.

부두목 그 집의 연락처 알아 왔습니다.

부두목이 연락처가 적혀있는 쪽지를 나서천에게 건넨다.

나서천 철진아! 수고했다.

부두목 그럼,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부두목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나간다.

나서천이 쪽지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건다.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어 왼쪽화면에는 나서천이 전화를 걸고 있고 오른쪽 화면에는 김형사의 처가 전화를 받고 있다.

김형사의 처 여보세요?

나서천, 잠시 수화기만 들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김형사의 처 누구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김형사의 처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생각하는데 나서천이 말문을 연다.

나서천 나서천이야.

(깜짝 놀라며)

김형사의 처 여길 어떻게
나서천 만나서 긴히 할 얘기가 있어.
30분 후에 집 앞 레스토랑에서 만나.
기다리고 있을 게.
꼭 나와.

김형사의 처,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화면이 원래대로 하나가 된다.
김형사의 어머니가 건넌방에서 거실에 나온다.

김형사어머니 무슨 전화냐?
김형사의 처 아범이 오늘 점심 외식 시켜주겠다고 나오라네요.
김형사어머니 내가 오래 살다보니 별 일을 다 보는구나.
아무튼 맛있게 잘 먹고 와라.
김형사의 처 네. 어머님

김형사의 처, 옷을 빼입고 나간다.

썸 73 나서천의 회상 3

김형사의 처가 레스토랑에 들어가 보니 햇살이 비치는 창가 옆 자리에
나서천이 앉아 있다.
김형사의 처, 자리에 가 앉는다.

김형사의 처 긴히 할 얘기가 뭔데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기 위해 온다.

나서천 커피
김형사의 처 나도 커피

웨이터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간다.

나서천 그동안 잘 지냈어?

김형사의 처 저 시간 없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
 바로 용건만 얘기해요.

나서천 고아원에 맡겼다는 윤지라는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내 딸 맞아?

김형사의 처 네. 맞아요.

나서천 근데 그동안 왜 나한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김형사의 처 그게 그 애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나서천 부모 없는 고아로 지내게 하는 게 그 애를 위한 최선이라고?

김형사의 처 저는 그 당시 그 애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볼 지 두려웠어요.
 그렇다고 조폭두목인 나서천 씨 당신에게 그 애를 보낼 수는
 더더욱 없었어요.

나서천 김형사가 그리 좋디?
 나와 윤지를 다 버릴 정도로

김형사의 처가 나서천의 뺨을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린다.

나서천(나레이션)

 그 때는 김형사에 관한 모든 것이 미웠지.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썸 74 교도소 / 오후

윤지와 나서천이 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윤지 누가 아버지 뭐라 손가락질해도 전 아버지 이해해요.
 아버지 꼭 식사 3끼 잘 챙겨 드시고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서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서천 아버지도 널 사랑한다.

윤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전 참으로
 행복했어요.
 늘 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나서천 나도 널 만나서 행복했다.

윤지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윤지 잊지 마시고요.

나서천 밥 잘 챙겨먹고 건강해라.
 난 여기서 삼시 세끼 잘 챙겨먹고 있으니.
 한창 자랄 나이인데 내가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미안하다.

윤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린다.

나서천도 목이 메어 말이 입 안에서 맴돈다.

윤지, 면회실을 나간다.

나서천은 윤지가 면회실 나가는 뒷모습을 쳐다본다.

썸 75 교도소 정문 앞 / 오후

윤지, 교도소 정문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다.

박형사가 윤지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준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윤지 아버지께 저가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 우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 아프실 테니까요.

박형사 그래. 여기서 마음껏 울고 싶은 만큼 울어.

윤지, 박형사를 안고 운다.

씬 76 김형사의 집 / 저녁

김형사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쳐다보고 있다.
창밖으로 불빛이 줄을 지어 보인다.
김형사의 어머니가 주스 한 잔을 들고 들어온다.
김형사가 주스를 건네 들어 마신다.

(잔을 김형사의 어머니에게 다시 건네주며)

김형사 채린엄마는 요?
김형사어머니 윤지가 안 들어온다고 세 시간 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식이 뭔지 원.

씬 77 김형사의 집 앞 / 저녁

김형사의 처가 애타는 모습으로 윤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 시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계속 같은 곳을 빙빙 돈다.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들어 김형사의 처는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보이면 달려가 윤지인 지 확인한다.
매 번 다른 사람이어서 김형사의 처는 실망한다.
그 때 차 한 대가 김형사의 집 앞에 와서 선다.
박형사와 윤지가 차에서 내린다.
김형사의 처가 손으로 윤지의 등을 때린다.

김형사의 처 어디 있다가 이제 와?
윤지 아파.
김형사의 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박형사 교도소에 가서 나서천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김형사의 처 잘 있나요?

박형사 네.

김형사의 처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사 고맙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형사가 차에 타 시동을 걸고 간다.

(윤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김형사의 처 다친 데는 없고?

윤지 네.

김형사의 처가 윤지를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윤지 엄마!

엄마 맞죠?

김형사의 처 네가 뭘 잘못 안 거 아니냐.

윤지 다 알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김형사의 처, 윤지를 꼭 끌어안는다.

윤지 엄마!

김형사의 처, 손으로 윤지의 머릿결을 만진다.

김형사의 처 내 새끼!

이 엄마가 많이 원망스러웠지?

윤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를 원망 안 해요.

김형사의 처 엄마가 무슨 낯으로 널 볼 수 있겠니?

윤지 엄마! 왜 저 있는 곳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가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김형사의 처 네가 보고 싶어 수도 없이 고아원 앞에 갔다가 눈물을 삼키고
뒤돌아섰지.

네가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학교까지 따라갔다가

돌아오곤 했지.

윤지야! 춥고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가자!

윤지와 김형사의 처,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씬 78 김형사의 집 거실 / 저녁

김형사, 김형사의 어머니가 뒤에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안방에서 나온다.
윤지, 김형사와 김형사 어머니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한다.

(윤지를 바라보며)

김형사 이젠 아픈 데 없고?

윤지 네.

김형사의 어머니, 윤지를 마땅치 않게 쳐다본다.

(김형사의 어머니를 의식하며)

김형사의 처 밖에 나갔다 들어 왔으면 손 씻어야지.

윤지 네.

윤지,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간다.

김형사의 처 어머님! 아직 저녁 안 드셨죠?

김형사어머니 난 생각 없으니 됐다.

아범은?

김형사 어머니! 저녁 안 드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형사어머니 아범이나 저녁 먹어라. 난 괜찮으니

김형사의 어머니는 건넌방으로 들어간다.

윤지,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온다.

김형사는 탁자에 있는 신문을 펼쳐 읽는다.

김형사의 처 윤지야!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 쉬어라.

윤지 안 피곤해요.

저도 엄마 저녁 준비하는 거 도울 게요.
김형사의 처 그럼 콩나물 좀 다듬어 줄래.
윤지 네.

김형사의 처는 냉장고 안에서 콩나물을 꺼내어 윤지에게 주고
당면과 양파, 당근을 꺼낸다.

김형사의 처는 당면을 물에 풀고 양파와 당근을 썬다.

윤지는 콩나물을 다듬는다.

김형사의 처가 신문을 읽고 있는 김형사에게 묻는다.

김형사의 처 당신 오늘 저녁 잡채밥 어때요?

(읽고 있던 신문을 접으며)

김형사 좋지.

내가 뭐 도울 일은 없을까?

김형사의 처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김형사 빈 말 아니야.

왕년에 내가 콩나물 다듬는데 선수였잖아.

윤지야! 그 콩나물 이리 주고 넌 방에 들어가 쉬어라.

(웃으며)

윤지 괜찮아요.

김형사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콩나물 이리 주라니까.

윤지 그럼 같이 콩나물 다듬어요.

윤지와 김형사 함께 콩나물을 다듬는다.

그 때 김형사의 어머니가 건넌방 문을 열고 김형사에게 방에 들어오라는 손짓을
한다.

김형사 어머니가 나보고 건넌방에 들어오라네.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

김형사의 처 네. 그러세요.

김형사, 건넛방으로 휠체어 이끌고 들어간다.

씬 79 김형사의 집 건넛방 / 저녁

(역정이 난 모습으로)

김형사어머니 아범! 지금 뭐하는 거야?

김형사 뭐하긴요.
윤지와 콩나물 다듬고 있었죠.

김형사어머니 아범은 낄 자리 안 낄 자리 분간도 못 해.

김형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손이 남으면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김형사어머니 윤지가 누구 자식이야?
그 나서천인가 뭔가 하는 놈의 자식 아니야.

아범은 벨도 없어?
세상에 그 철천지원수 나서천의 자식이 뭐가 좋다고
살갑게 대해 주냐 말이야.

김형사 어머니! 지난 일을 탓해서 뭐합니까?

김형사어머니 지난 일이라고?
아직도 내 눈엔 채린이가 살려 달라고 발버둥 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김형사 어머니! 그 일은 이제 잊으세요.

김형사어머니 잊으라고.
어떻게 그 일을 잊어?
그 생때같던 내 손주가 꽃도 채 못 피워보고 죽었는데.

김형사 어머니!
윤지가 있잖아요.
윤지를 채린이 대신 잘 키우면 되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며)

김형사어머니 누구 염장 터져 죽는 거 보고 싶어.
아범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

김형사, 휠체어를 이끌고 거실로 나온다.

씬 80 김형사의 집 거실 / 저녁

윤지와 김형사의 처가 저녁상을 차려 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

김형사 왜들 식사는 안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김형사의 처 여보! 미안해.

김형사 뭐가?

김형사의 처 아까 들었어.

 어머님 큰 소리 치시는 거

김형사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김형사의 처 내가 당신에게 입양 얘기만 안 꺼냈어도

김형사의 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김형사의 처 모두 내 잘못이야.

김형사 그런 말이 어딴어?

윤지 엄마!

김형사의 처,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앞에 나가 벽에 기대어 운다.

윤지가 뒤따라 나가 벽에 기대어 우는 김형사의 처를 위로한다.

씬 81 김형사의 집 서재 / 밤

김형사는 선반에서 양주를 꺼내어 컵에 따라 마신다.

그 때 김형사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다가 불 켜진 방을 발견하고 서재에 들어온다.

김형사 어머님! 한 잔 드실래요.

김형사어머니 아니다. 아범도 과음하지 말고

김형사 네. 어머님

김형사의 어머니, 서재에서 나간다.

김형사의 처, 잠이 안 와 거실에 나왔다가 불 켜진 방을 발견하고 서재에 들어온다.

김형사의 처 나도 한 잔 따라 줄래요.

김형사가 양주를 잔에 따라 김형사의 처에게 건넨다.
김형사의 처가 술잔을 건네받아 한 번에 다 마신다.

김형사의 처 당신! 안주 없이 이렇게 마시면 속 배려.

김형사의 처, 주방에 가서 냉장고에 든 김치를 한 접시 담아 서재에 가져온다.

김형사 당신 밖에 없어.
김형사의 처 그걸 이제 알아.

김형사, 피식 웃는다.
김형사의 처도 김형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 웃는다.

썸 82 김형사의 집 안방 / 밤

김형사와 김형사의 처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김형사의 처 당신 자?
김형사 왜?
김형사의 처 내가 당신 병원에 혼수상태로 누워 있을 때 했던 말 뭘지 알아?
김형사 혹시 자판기 커피 얘기 안 했어?
김형사의 처 당신 그 때 내 말 듣고 있었던 거지?
김형사 무의식은 당신 말을 듣고 있었나 봐.
김형사의 처 당신 이렇게 내 곁에 다시 돌아와 줘서 고마워.
 언제까지나 당신만 평생 사랑할 게!
김형사 나도 당신만 평생 사랑해!

썸 83 김형사의 집 건넌방 / 아침

김형사의 어머니 잠에서 깬다.
온 몸이 쭈시고 결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김형사의 어머니, 소리를 지른다.

김형사어머니 누구 없어?

윤지가 김형사의 어머니 소리를 듣고 바로 건넛방으로 뛰들어온다.

윤지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김형사어머니 온 몸이 쭈시고 걸려.

윤지 저가 주물러 드릴 게요.

윤지가 김형사어머니의 온 몸을 주무른다.

처음엔 아파하던 김형사어머니도 이내 평온함을 되찾는다.

김형사어머니 온 몸이 쭈시고 걸렸는데 윤지 네가 주물러 주니 아픈 게 씻은
듯이 다 나은 것 같다.

윤지 할머니!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주물러 드릴 게요.

할머니! 방 안에 계세요.

저가 아침상 차려 들고 올게요.

윤지가 건넛방에서 나간 후 김형사의 어머니는 깜빡 잠이 든다.

썩 84 김형사어머니의 꿈

꿈에 채린이가 보인다.

채린이가 김형사어머니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채린 할머니!

채린이 하늘에서 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 대신 언니 잘 보살펴 줘요.

채린이가 김형사어머니 눈에서 사라지자 김형사어머니는 채린이를 부른다.

김형사어머니 채린아!

썸 85 김형사의 집 건넛방 / 아침

김형사어머니 채린아!

김형사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급히 김형사의 처가 건넛방으로 달려온다.

김형사어머니,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핀다.

김형사의 처 어머니님! 괜찮으세요?

김형사어머니 방금 채린이를 보았는데 어디 있지?

김형사의 처,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윤지가 조금 있다가 건넛방에 아침상을 차려 들고 온다.

김형사어머니, 윤지를 채린으로 본다.

김형사어머니, 일어나서 윤지의 얼굴을 양 손으로 만진다.

김형사어머니 우리 채린이가 여기 있었구나.

윤지와 김형사의 처 모두 당황한다.

김형사의 처, 김형사의 어머니에게 채린이가 아니라 윤지라고 말하려는데

윤지가 말린다.

(윤지를 꼭 껴안으며)

김형사어머니 고맙다. 윤지야

넌 통해 잠시나마 채린이를 만날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했다.

김형사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윤지, 손수건으로 김형사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준다.

김형사어머니 모두들 아침식사 하거라.

이 노인이 주책이 없어서

윤지 저 할머니하고 같이 이 방에서 식사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죠?

김형사어머니 정말 이 할머니하고 식사하고 싶어?

윤지 네.

윤지, 거실에 가서 얼른 밥 한 그릇 들고 건넌방으로 들어간다.

씬 86 김형사의 집 거실 / 아침

김형사와 김형사의 처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김형사의 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김형사 뭐가?

김형사의 처 어머님 말이에요.

김형사 어머니가 왜?

김형사의 처 전과는 윤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 보여요.

김형사 어떻게 다른 되?

김형사의 처 뭐랄까 하이튼 그래요.

김형사 말을 하다 말고. 당신도 참 실없기는.

씬 87 김형사의 집 건넌방 / 아침

윤지와 김형사어머니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형사어머니 지금 이 때 잘 먹어줘야 키가 쑥쑥 크는 거야.

윤지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윤지가 숟가락을 놓는다.

김형사어머니 윤지야! 더 먹지 그래.

윤지 지금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김형사어머니 더 뽀 살도 없어 보이는데

윤지야! 너 다이어트 한다고 밥 굶지 마라.

윤지 네. 할머니!

윤지, 상을 들고 건넌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부른다.

김형사어머니 윤지야! 아범과 어멈 건넛방에 오라고 해라.

내가 할 말 있다고

윤지 네. 할머니!

씬 88 김형사의 집 주방 / 아침

윤지가 건넛방에서 상을 들고 나온다.

김형사의 처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윤지 엄마!

김형사의 처가 그릇을 물에 헹구며

김형사의 처 엄마 설거지 하느라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윤지 할머니께서 엄마 하고 아저씨 건넛방에 오라고 하셔.

씬 89 김형사의 집 건넛방 / 아침

김형사와 김형사의 처가 건넛방에 들어온다.

김형사의 처 어머님! 부르셨어요?

김형사어머니 그래.

윤지는 안 보이구나.

윤지도 들어오라고 해라.

김형사의 처,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를 데려 오려고 건넛방에서 나간다.

조금 있으니 윤지와 김형사의 처 함께 건넛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윤지와 김형사의 처가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본 김형사의 어머니가 말한다.

김형사어머니 어멈과 윤지 둘 다 편하게 앉아라.

무슨 죄 진 것도 아니고.

김형사의 처 네. 어머니!

윤지와 김형사의 처 편하게 자리에 앉는다.

김형사어머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윤지를
아범자식으로 올려도 좋다.

(믿기지 않는 듯)

김형사의 처 어머님! 정말이세요?

김형사어머니 그럼. 정말이지.
늘 속고만 살았냐?

김형사의 처와 윤지가 동시에 김형사의 어머니를 꼭 끌어안는다.

김형사어머니 애들이 왜 이래.

김형사,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김형사의 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김형사의 처 어머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윤지 받아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게요.

윤지도 어느새 눈가가 축축해져 있다.

김형사 윤지야!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

윤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윤지 아버지!

김형사 더 크게 불러봐.

(큰 목소리로)

윤지 아버지!

김형사가 윤지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김형사 이렇게 기쁜 날 뭐하면 좋을까?

윤지 아버지, 엄마, 할머니와 함께 저녁 때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불러요.

김형사 그렇까.

김형사어머니 난 아는 노래 별로 없는데

윤지 저가 할머니한테 노래 가르쳐 드릴게요.

김형사어머니 그럼 나도 가지.

썸 90 노래방 / 저녁

윤지와 김형사어머니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김형사와 김형사의 처가 탬버
린을 흔들고 있다.

언제 김형사가 전화를 했는지 어느새 강력반장과 박형사, 이형사도 노래방에
와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윤지와 김형사어머니가 반주에 맞춰 밤이면 밤마다 노래를 부른다.

강력반장과 박형사, 이형사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을 돋운다.

썸 91 에필로그

김형사와 김형사의 처, 할머니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다른 테이블에 강력반
장과 박형사, 이형사가 앉아 있다.

윤지 혼자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를 부르다가 양 팔로 하트 모양을 그려 보이며)

윤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경쾌한 비트음악 흐르며 엔딩 타이틀 뜬다.

[The End]